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공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놔라

☞ 21면에서 계속

거, 일체 유생 무생의 그 만 사람의 마음의 꽃이 향기로써 이 우주를 덮는다면 우리는 이 마음이 어떻고 저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갈라서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꽃의 향기와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똑똑하고 착하고 어질고 도의, 의리,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지혜 높은 그런 넓은 사람이라면, 또는 이 도리를 알아서, 공한 도리를 알아서 자기의 아상도 세우지 않고 욕심도 착도 두지 않고 둥글둥글 걸리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법신이자 부처인 것이죠.

그래 한암 스님도 어느 목사님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스님께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스님께서는 어찌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암 스님 말씀이 거기에서 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모르니까 "당신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나도 그것밖에 모르오. 만약에 당신이 안다면 나도 알지." 하시더랍니다.

사람은 몸뚱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폭발이 된 문제들을 신문에서도 보고 또 테레비에서도 보고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물질적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 탄 사람이나, 탄 사람의 몸이나, 탈 수 있는 집이나 역시 물건이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의 근본은 절대로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의 그 능력과 무한의 그 생동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인간이 그 도리를 안다 하면 몸을 나라고 하기 이전, 참나로 하여금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호응하면서 공용하면서 어느 고장이라도, 어디든지 보고 듣고 가고 오고, 가고 오지 않으면서도 가고 올 수 있다고요. 빛보다도 더 빠르고 말로 세워서 말할 수 없는 그 찰나, 한 찰나. 각자 여러분 마음 깊이 한 찰나선은 그렇게 생동력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받치고도 남고 굴리고도 남고 들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에서 서로 응용하면서 서로 공존하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갖은 각색 천차만별로 돼 있는 거를 다 찰나찰나, 바로 찰나, 번갯불 같은 찰나선입니다. 어떻게, 한다 하리까, 하지 않는다 하리까? 없다 하리까, 없지 않다고 하리까? 있다 하리까, 없다 하리까? 그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에, 바로 한 찰나선에 우린 번갯불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전달을 해서 이 뜻을 이날까지 가르쳤건만 오늘날에 참, 그 가르친 마음의 선맥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어느 스님네들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여러분의 차원은 실과가 만 가지 맛이 나듯이 만 가지의 차원이 있으니 그 차원의 그릇대로 우리는 바로 자기가 산다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모두가 텅텅 비어서 한계가 없고 무한의 능력이, 자기가 한다 안 한다 말 없이 항상 늠름하고 여여하게 해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나온 줄 알아야 모든 일체 만물이 다 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실상을 그대로 실상으로 여여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찰나찰나 고정된 게 없이, 듣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고, 만남도 고정된 게 없고, 행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어서 모든 게 찰나찰나 자기가 화해서 돌아가고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세울 게 있어서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니, 바로 그 공이면서도 찰나찰나 여여하게 해 나가는 것이 세울 게 없으면서도 여여하지 않으냐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의 무전자와 더불어 유전자, 유전자와 더불어 이 물질, 육신과 삼합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광대무변한 것을, 우리는 무전자나 유전자 이런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내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내 몸뚱이, 말, 생각 그저 이걸로써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죠? 그러니 구덩이에 빠지니 압니까? 자기가 어디서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가는 건지 그것조차도 가늠을 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지혜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지혜가 없다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20여 년 전 얘깁니다. 어느 때 우리 신도님 한 분이, 그 아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서 있다가 나중에 모범수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도 서울에서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어느 아무개 아무개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가르쳐 줬지요.

내가 내 주인공을 '주인공' 하고 부를 때는 내가 그 아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주인공도 되고 내 주인공도 되고 한꺼번에 합쳐서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속으로 '주인공!' 하면 벌써 그 아들과 나와 같이 한데 합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주인공!' 하면 벌써 그렇게 되니 해 달라, 안 해 달라 그런 것도 생각지 마세요. '아들이 나왔으면….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하는 거는 내 여기 간절하게 본래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런데 뭘 또 해 달라 말라, 응? 잘되게 해 달라, 못되게 해 달라 이런 말을 또 해야 되고 또 생각을 거푸거푸 해야 됩니까? 내가 소원 풀 수 있는 그 생각은 벌써 여기 간절하게 본래 있는데! 그럼 덧붙이기로 벌써 두더기가 돼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깐 내가 본래 아는 거에다가 '아휴, 주인공!' 하면 한데 합쳐지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것도 겉으로만 하는 게 아냐. 마음속으로 '주인공' 하면 벌써 거기에 다 한데 부합이 되어서 같이 돌아가는데 뭐 해 달라고 안 해 달라고가 있습니까? 그렇게 빠르게 직속 놓고 돌아가야지 그렇게 어치정어치정, 어물어물하다가는 치입니다.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한 찰나 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어치정어치정하다가는 벌써 치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다 보십시오. 명동 거리에 가다가 사람들이 많은데 어치정어치정하다가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금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게 그 쪼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갈 길은 못 가고 싸우다 볼일 못 보지, 한 발 떼다 볼일 못 보지, 또 그러면 이쪽에서 치이지, 그러면 싸우지, 이러다가 한 세월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있어야 부처를 이루지 육신이 없고야 어떻게 부처를 이룹니까? 그건 왜냐하면, 육신이 없고 내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만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육신이 없어서 부닥침이 없어. 더하고 덜함이 없어. 이거는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더하고 덜함도 없으니까 내가 체험하고 배울 게 없거든. 진화될 수가 없어. 계발될 수도 없고. 내가 뭐, 물건이 있어야, 물건으로 상대가 있어야 어떻게 해 볼 텐데, 더 발전이 되고 계발하고 이렇게 나갈 텐데 이 영이라는 것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거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렇게 생시에 살다가 차원에 따라서 삼차원이다 하면 삼차원대로 그냥 있고, 이차원이다 하면 이차원에 그냥 있고, 머물러서 더하고 덜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그 차원에서 생산이 될 뿐이에요. 원소가 무쇠라면 무쇠로 물건을 해서 생산을 할 수밖엔 없는 거죠. 금이라면 금대로, 원소가 금이니까 금에 의해서 반지를 하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바로 생산을 해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차원도 차원대로, 죽으면 몸이 없으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다, 고 차원에서. 그러니까 생산이 돼 나와도 고 차원에서 나와야 되니까, 고 차원끼리 인연에 따라서 만남이 된단 얘깁니다. 한 식구가 모였다 할 때는 고 차원대로 딱, 보는 사람도 고 차원 또 당하는 사람도 고 차원. 그러니까 고(高) 차원이 아니라 고 차원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차원에 따라서 이차원끼리는 이차원끼리 만나고 삼차원은 삼차원끼리 만나고 사차원은 사차원끼리 만나. 그러니 만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깡통끼리 만났다면 쪼끔만 건드려도 와르르 부서져서 소리가 그냥 엥그랑뎅그랑 엥그랑뎅그랑 나는 거죠. 그런데 넝마끼리 만난다면 넝마는 소리는 안 나는데 내성적으로, 그저 그냥 항상 빠느라 볼일 못 보고, 꿰매느라 볼일 못 보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식구들이 전부 같은 넝마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가난하다 이겁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면,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 무슨 짓을 할는지도 모르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 생각 잘못하면 그 한 생각 잘못한 걸로 연관성을 가지고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차원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이 없다면, 또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망상을 끊으려고 하지 말고 녹여라 이겁니다. 네가 망상을 내는 거지 딴 데서 내주는 게 아니니까, 네가 망상을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놈도 바로 그놈이고, 하고 있다고 하는 놈도 그놈이니 모든 것을 거기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공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해서 이 모습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본래 모습이 없다면 벗어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오관을 통해서 크고 작은 것도 알게 됐고, 고상한 것도 알게 됐고 더러운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이 이렇게 좋은 것을 참 미처 몰랐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이 몸뚱이가 있고 오관을 통해서 들이고 낼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진화력으로서, 우리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법신으로서 부처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륵보살, 미륵부처' 이러는 것이 미륵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나올 것을 미륵보살이라고 그러고 미륵부처라고 합니다. 본래 부처가 된 사람은 부처라고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앞으로 차차 부처님이 돼 나오실 것은 미륵보살이라고 하죠. 미륵부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미륵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거고 미륵부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있다면 후대 대통령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고 또는 계발을 하고, 이 천체에 어디고 걸림 없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천지 만물 다, 우리는 아주 흰 꽃처럼, 향기처럼…. 그래서 그것을 만 백화라고 이름을 할 수도 있는데 만 백화의 향기는 바로 만민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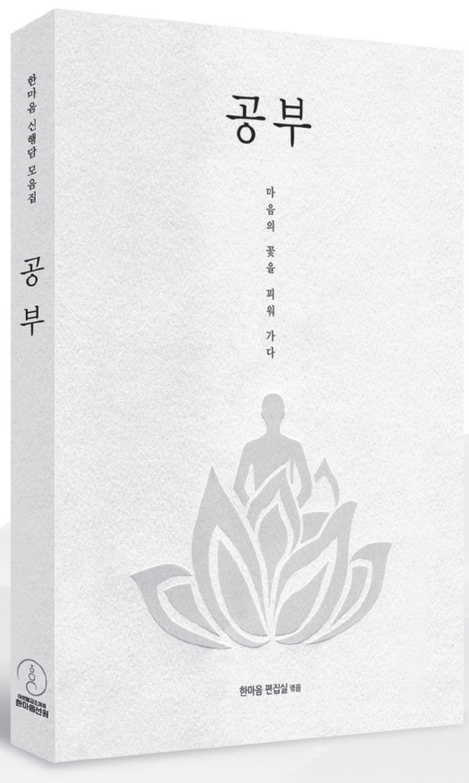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말을 시켰으니깐 하긴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할 때는 여기 하나도 내가 말한 예도 없고 여러분이 말 시킨 예도 없고 대답한 예도 없습니다. 모습만 다 각각이지 생명도 같아. 마음도, 또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것도 그래. 같이 이렇게, 독불장군 없으니 얼키설키해서 이 세상 살아나가니 공체고 말입니다. 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하셨다면 그 '참나'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내 이 몸이 공해서, 몸 하나 공한 것과 세상 공한 것과 둘이 아니라 전체 더불어 같이 공했으니,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놓으면 참자기의 그 익은 맛을 알게 되고, 한 맛을 알게 되면 만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한 데서 나오는 거 공한 데다 놓으면
참자기의 그 익은 맛을 알게 되고
한 맛을 알게 되면
만 가지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6년 1월 30일 일반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